

“우리는 도반”... 공동체의식 배양

문명의 흐름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직장생활은 현대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 일차적인 가정공동체 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 직장공동체. 이에따른 직장법회는 불교의 대중화, 불교자변화의 핵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신성한 꽃으로 불리고 있는 직장 직능법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조계종 포교원 소임자의 직장법회를 적극 후원하는 경영자, 그리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직장법회의 활성화라는 원력을 실천하고 있는 3인이 자리를 함께 했다.

(편집자 주)

안전을 위하여 부처님께 귀의한 바 있습니다. 직장법회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시작된 직장직능법회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적으로 80년대 중반에 융성했다가 90년대에 들어서는 활동이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건국=사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직장직능단체들의 실행형태와 지속적이지 못한 실행생활, 스님들의 무관심, 전문종단의 정책적 지원이 직장직능법회가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프로그램 연구개발 절실

▲화암스님=전국의 청·장년불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회원간의 연락부재와 회원의 소극성, 그리고 시간부족, 법사부족, 경제적 부담, 프로그램의 부족 또한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안정황=각 시도별, 회원지구별 직장직능법회와 유사직종별 전국 합동법회의 개최를 통한 정보 교류는 물론 불자간의 우호증진의 기회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정황=현대사회가 물질화되면서 말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가정교육이라는 의미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대어린이 및 가정교육의 토대가 되는 불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생각합니다. 하루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사회윤리며 질서등을 익히는 현대에서 직장법회는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품성과 품위, 윤리 도덕성을 기르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생활의 중심 '직장'

▲이건국=불교도민의 일차적인 역할이 흩어진 개인이 모여 서로 도움이 되는 도반이 되지는 것이고, 포교는 그러한 도반을 주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직장직능법회는 직업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법회를 보기 때문에 자연 화제와 정서의 공유가 이뤄져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고 포교의 효과도 높을 것입니다.

▲화암스님=맞습니다. 그렇게 모인 직장직능단체의 대종이 많을 때 불교는 탄력을 얻을 수 있고, 불교인구의 저변화와 대중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역량을 불자와 불교단체의 양상을 위해 종단과 일반불자, 기업경영인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돌아야 할 때입니다.

▲안정황=금년 3월 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회가 직장직능법회를 정책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한 '전국 직장직능 실행단체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직장직능법회는 1백31곳, 직능법회는 49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립시기는 90년대에 47%로 가장 많고, 동참회원인 20~1백여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체법당이 있는 곳이 불과 28%에 머무르고, 법회회수는 52%가 월1회, 18%가 주1회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나마도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화암스님=부처님 당시에도 대상(象商)이라고 불리는 무역하는 상인들의 무리가 집단적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여 육로이동이나 해상이동 등 무역을 하는 동안

인데 불자회 운영의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안정황=많은 직장직능법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불자회는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92년 6월3일 창립해 40여명의 회원들이 매일 첫째주 화요일 잠실 불광사에서 실행생활을 하고, 때때로 가족동반 성지순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유발과 실행을 통한 생활의 잊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월급날이면 일괄적으로 내는 회비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온정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회원들이라 한 회사내에서는 언제나 모범사원이라는 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다닙니다.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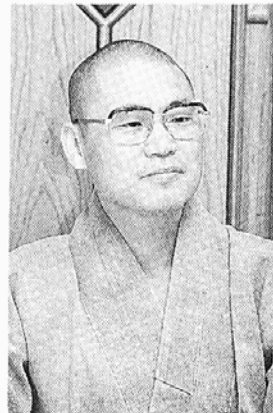
참석자

- 화암스님 (조계종 포교원 연수국장)
- 이건국씨 (일흥기업 사장)
- 안정황씨 (수협중앙회불자회 회장)

■ 일시: 1996년 10월2일 오후3시
■ 장소: 녹수청산



이건국씨



화암스님



안정황씨

임이 있어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시의 희생적 불교 정신이 기업내에서 어떻게 자리잡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사의 외화가 모일과 단체의 결집과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내 직장법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황=그러자면 불자 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실행활동과 포교 활동이 필요합니다. 불자들은 자신이 불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심불교를 표방하고 대중화를 내세우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실행형태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민종생, 구제중생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볼 때 적극적인 도반의식과 활동 참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통한 법회 질향상

▲화암스님=활성화된 직장직능법회는 거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노력화되어 가는 불교인구를 젊은 층의 불교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직능법회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종단을 의외하게 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법조인, 의료인, 교사, 정치인, 세무사, 금융기관, 기업체 등 다양한 직종과 직능인들의 모임은 교단과 소속 사찰스님, 불자들이 부담한 의침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직능조직마다 전국적이며 유기적인 연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국=직장직능법회는 자신의 신심을 진작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회사에 요익증생의 본래원칙과 기업이윤에 일조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윤리 도덕성은 물론, 화합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근거가 될 때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될 것 입니다.

▲화암스님=지방화시대에서의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지압분으로서의 역할과 불교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불자 개인의 든든한 불심과 각 사회구성원간의 신뢰구축, 적극적인 종책차원의 계획수립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정리=도필선 기자

“종단-회사 지도 법사·재정지원”... ‘젊은 불교’ 기대 직능법회 전국 조직화 되면 전문인력 불교발전 기여

▲이건국=열악한 환경속에서 직장직능법회에 헌신한 모범불자 및 우수법회지를 발굴해 포상격려하는 방안 모색도 중요할 것입니다.

▲화암스님=포교원은 내년에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단기수련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장법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지요. 또 현재 직장직능단체가 종단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금년말 정기총회에 상정, 신도법사 파견, 직장직능인을 위한 자료 개발, 각종 연수자료와 프로그램개발제공 계획 등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종단의 노력은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종단의 노력뿐 아니라 회원 각자의 노력또한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찰 스님과의 관계 모색을 통한 신뢰구축

“직장·직능단체 종단등록 추진”

화암스님

“언행일치 실천 불자 선도해야”

이건국씨

“불교민으면 모범사원” 인식 확대

안정황씨

교가 사회윤리 도덕성의 근간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익 비전 제시

▲이건국=같은 불자로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도 울출 공식출범한 '이타원'이라는 불자들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경영자인 제가 아무래도 불자라 보니 회비모금활동에서부터 법회일, 초파일 등에는 일일이 신경쓰게 되고 후원할 일이 없나하고 살펴보게 되더군요. 물론 그 모임이 어느

정도 기업이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입니다.

▲화암스님=종단의 지원이 정무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뜻있고 신심있는 여러분의 정진으로 불자의 모임이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더니 종단에서 소임을 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내에서 실행활동을 전개하지만 종교적 특성과 자본주의 논리와 적절히 이해가 선행돼야 하리라 봅니다.

▲이건국=직장직능법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익이 우선인 회사내에 불교도

연행일치를 실천해가는 불자들의 노력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안정황=기업이익 차원에서 본다면 대중적 호응, 화합과 번영 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불교윤리와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윤리의 융화는 꼭 필요할 것 입니다. 요익증생의 진리를 직장내에서 활용, 화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건국=부처님의 기본교리는 변화할 수 없지만 보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기업내에 또는 불자회내에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타종교인에게도 불교의 정신적인 우수성을 보여줘 융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암스님=직장직능법회의 불교윤리가 기업내에서 제창되고 사회속에서 자리매김할 때 분명 현대에 맞는, 나아가 2천년대 불교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광범위한 조직을 엮어내는 그 단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봉 고불 총림 백양사 방장 추대식 축

일시: 불기2540년 10월 25일 (금) 오후2시

장소: 백양사 대웅전

백양사에서는 한국최초의 총림인 고불총림이 복원됨에 따라 전종정이신 西翁大宗師께서 방장으로 추대되어 원로대덕 큰스님과 여러 사부대중을 모시고 고불총림 방장추대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고불 총림 백양사 방장추대식 준비위원장 석천운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지선 **합장**